

수입 염화콜린 2차 반덤핑 판정

무역위원회, 2009년까지 미국·인디아·중국산 수압규제 결정

가축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수입 염화콜린이 1996-2001년에 이어 2번째로 덤핑 긍정판정을 받아 앞으로 2009년까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무역위원회는 2004년 9월22일 개최된 제208차 회의에서 미국·인디아산 염화콜린에 22.19%, 중국산 10.28-27.55%, 캐나다산에는 26.88%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입 염화콜린은 1996년 9월부터 2001년 9월에 걸쳐 1차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가 국내 생산기업인 코파벤스페셜(옛 코린화학)이 2003년 10월31일 재차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을 하면서 2004년 4월 무역위원회에서 국내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4월부터 미국산 29.57%, 인디아산 58.16%, 중국산 12.97-27.55%, 캐나다산 26.88%의 잠정 덤핑관세가 부가돼 최종판정에서 미국 및 인디아산이 잠정관세 보다 낮게 책정됐고, 중국 및 캐나다산은 큰 변동이 없었다.

국내 유일의 염화콜린 생산기업인 코파벤스페셜은 국산보다 30% 가량 저가로 유입되는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재고가 폭증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30>